

부여 낙화암 전설의 형성과 전개*

황 인 덕**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타사암'에서 '낙화암'으로의 전환과 그 기반 |
| 2. 전설 형성의 역사배경 | 5. '삼천'궁너로의 과장표현과 상상의 확장 |
| 3. 전설 성립의 초기 모습 | 6. 맺음말 |

1. 머리말

부여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비강변에 높이 솟은 낙화암이 아닐까 한다. 누구나 부여에 가면 부소산에 들르게 되고 부소산을 오르는 이들은 이리 저리 굽이길을 돌아 낙화암에 올라 사비강을 굽어보는 순서를 거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대하는 경관을 보고 탄성을 내뿜곤 하는 곳이 바로 낙화암이다. 이 낙화암이 유명한 것은 물론 거기에 묻어있는 전설 때문이기도 하다. 낙화암이란 이름이 이미 전설을 반영하고 있듯, 부소산을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저절로 위 전설을 접하고 깊은 감회에 젖어들게 된다.

일견 단순하면서도 오랜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전설—의자왕 말년에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라가 망하자 절개를 지키고자 삼천명이나 되는 궁녀가 바위 위에서 자비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는—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특이한 자연 경관과 거기에 얽힌 사건의 결합 관계가 주는 특수함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해야 될 듯하다. 전설 배경의 역사적 심각성, 사건의 비장성, 그리고 인물 표현의 과장성 등 전설 내용에서 오는 특이성과 심각성에다 전설의 자연배경에서 우러나는 감동의 협과 상상의 폭이 적절히 결합되어 위 전설은 현지 방문자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것처럼, 위 전설 속에는 한여름의 폭풍처럼 느닷없이 휘몰아쳤을 백제말기 역사의 역동적인 상황이 잘 집약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한 시대 역사가 주는 충격이 이 전설의 청자들로 하여금 상상의 진동을 크게 하고 한없는 감회를 안겨 줌으로써 보는 역사가 아닌 듣는 역사로서의 부여에 대한 인상을 깊게 심어주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백제 역사와 관련된 설화로서 백제사와 백제 문화의 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위 전설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위 설화가 이처럼 가볍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일정한 역사 위에서 밝아온 전설로서의 역경은 어떤 것일까? 위 전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해 전설로서의 본질을 중시하여 이를 깊이 주목하려 한 노력은 가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삼천궁녀제에 대한 연구는 부수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설을 그 자체로서 전면적으로 다루려는 관점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된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 이 글은 위 전설을 감싸고 있는 의문들 가운데 그것이 전설로 형성되고 변화된 과정을 주된 관심사로 설정하여 이해를 구해 보려는 것이다. 이 전설의 핵심 요소인 ‘궁녀’에 대한 역사·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전설의 형성 단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낙화’암의 발단은 어디에 있고, 삼천궁녀의 ‘삼천’ 화소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변화와 역사인식은 어떠했을까.

줄거리는 짧지만 오랜 전승력을 유지해온 이 전설 속에는 이러한 중요한

1) 한국사마니즘학회 편, 『삼천궁녀제 연구』, 문덕사, 2000, 8. 참조.

문제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써 위 전설은 역사적 비중에 값하는 것이라 하여 좋을 듯하다. 그런 만큼,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의 해명은 곧 위 전설이 백제사·백제문화의 이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의의와 위치를 지닌 전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본다.

2. 전설 형성의 역사배경

먼저 이 전설이 형성된 역사 배경부터 짚어보는 문제부터 관심을 기울여 보기로 한다. 역사적 상황에 처한 역사는 역사인식이 뚜렷해지고 역사에 대한 평가가 선명해진다. 이에 따라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의 잘잘못과 호호(好惡)가 분명히 갈리고 평가가 극단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례이다. 낙화암 전설의 핵심사실은 일부 궁녀들의 비장한 죽음이며, 이것은 가감이 없는 사실 자체이다. 그런데, 백제의 멸망을 보는 후대인의 비판적·부정적 인식에 따라 역사사실이 증폭되고 과장되어 표현의 세계인 전설을 이루게 되었다.

역사전설은 이처럼 인식과 사실이 뒤얽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얽혀서 표현되는 역사는 표현 이전의 사실과는 달리 질적 변화를 이룬 것이다. ‘있는 것’도 역사이고 논리적으로 조직화되어 ‘말로 서술된 것’도 역사이듯, 전설 속에 조직화되고 인식된 것은 그것대로 있는 역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역사이다. 사실과 인식은 전설 속에 융합되어 표현적 사실이 되며, 전설적 표현은 곧 역사사실과 그를 통해 지향하는 전승자의 주제의식이 합쳐져 구전 문학적 진실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중(口衆)의 공감 속에 널리 전승될 수 있게 된다. 백제 말기 궁녀들이 사비강에 몸을 던져 죽은 것이나, 임금이 궁녀들과 벌인 유희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일 것이다. 이들 사실이 뒤에 백제사를 보는 비판의식과 만남으로써 지금과 같은 과장표현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된 결과로서의 전설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는 먼저 궁녀들의 추락 사실을 주된 소재로 삼아 과장되게 표현하게 한, 백제를 보는 부정적 역사인식의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크게 볼 때 궁녀들이 궁

필에서 보여준 어느 정도의 문란한 생활상과 함께 궁실의 과도한 유락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여 살필 수 있다고 본다.

1) 궁녀들의 발호와 문란

의자왕은 처음에 정치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품성면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으나 집권 말기로 이르면서 실정을 거듭했다. 이러한 실정의 한 고리를 임금이 왕비를 지나치게 신임하고 정사에 소홀함으로써 왕비의 세력이 비대해지고 정치력을 지나치게 강하게 발휘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런 점이 멸망 무렵의 소문담을 통하여 백제궁성에서의 왕비와 그 비호세력들 전체 - 즉, '궁녀' - 의 존재와 역할이 과대평가되고, 그에 의한 폐해성이 과장되어 알려지고 확산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이해된다.

의자왕은 본디 사람됨이 '영결스럽고 용감하며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즉위 15년을 전후한 무렵부터 그의 뛰어난 정치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이것은 왕비 군대부인(君大夫人) 및 외왕(外王)과 소왕(小王) 을 비롯한 왕비측 세력의 정치력이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로 이해된다.²⁾

혹 백제는 스스로 망했다고 한다. 군대부인 요녀의 무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요녀가 국병을 마음대로 하여 (현량을) 주살한 때문에 이러한 화를 부른 것이었다(《일본서기》 권26, 齊明紀 6년).

의자왕 즉위 15년의 정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기록은 왕비 군대부인이 정사를 천단하여, 결국 그로 인해 망국의 화를 자초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왕비를 요부로까지 묘사하고 있음이나, 어진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내용에서 그녀의 정치적 위세와 그로 인한 폐해가 심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궁녀의 과도한 정치행위는 왕비 한 사람의 그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필경 그를 둘러싼 일단의 세력군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다음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2) 박민경, 「무왕 의자왕대 정국운영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학회, 2000. 12), 571, 590쪽 참조.

금년 정월 國主母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第王子 兒 요기 및 그 母妹女子 4인, 내외평 岐妹 및 고명한 40여인이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일본서기》 권 24, 황국기 원년)

왕비가 세상을 뜨자 그녀의 영향 밑에 있던 세력이 대거 몰락하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와 혈족임으로 하여 차기 권력 구도에 위협이 있는 인물이거나, 그를 매개로 한 일군의 여성 혈연세력 및 이를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고명한 신하들이 대거 쫓겨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왕비의 주위에 이처럼 많은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인척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에워싸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궁녀’의 정치력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도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같은 논리에서, 이를 이은 의자왕의 부인 역시 이와 비등한 정치세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세력 판도를 이루면서, 위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당시의 정치 구도에 큰 파행을 낳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급기야 위와 같은 妖婦라는 평을 받게 하고 나라를 망쳤다는 여론까지 유발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 《일본서기》의 군대부인에 대한 기록은 지나친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실권이 점차 커진 군대부인은 급기야 의자왕 15년에 이르러 성충·홍수·임자·사택지적 등 현량 충신들을 도태시키고 태자 책봉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³⁾ 그런 만큼 정치는 어긋나고 위와 같은 비판적인 여론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는 당시 당나라 군사 측을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되고 있다.

밖으로 直臣을 버리고 안으로 妖婦를 믿었는데, 형벌이 미치는 것은 오직 賢良이며 충애가 더해지는 것은 詔倖이었다(《한국금석전문》, 당평백제비, 54쪽).

망국의 원인을 의자왕의 실정으로 돌리고 이를 꼬집어 비판하고자 한 위 인용문에서 왕비의 간여에 의한 파행정치가 교묘하게 진행되어 나간 모습을

3) 유원재 편, 『백제의 역사와 문화』(학연문화사, 1996), 469쪽 참조.

짐작할 수 있다. 요부로 묘사되고 있듯, 이러한 왕비의 속임수가 의자왕의 총명을 마비시켜, 닥쳐올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주연에 탐닉함으로써 금기야 나라를 위기로 치닫게 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당시 궁녀집단의 존재와 그 세력을 과대평가 하게 하고, 나아가 임금과 밀착되어 망국으로 치닫게 한 존재로까지 인식케 하는 요인이 되었던 듯하다.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이들의 존재 및 일탈의 정치 행태, 그리고 혹 여기에 부수되기도 했을 비리와 부조리가 당시의 조정에 큰 불만을 낳고 그것은 나쁜 여론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백제 멸망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망국 예조 현상 가운데 궁녀와 관련된 것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백제본기 의자왕 19년 조에 궁녀와 관련된 예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19년 봄 2월 여우떼가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한 마리 흰여우는 상좌평의 책상에 앉았다.
- (2) 여름 4월 태자궁에서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했다.
- (3) 가을 8월 여자의 시체가 생초진(生草津)에 뒹군데 길이가 18척이었다.

예조현상의 발견과 기록화는 그것이 지닌 사실성 자체의 중요성 못지 않게 그것을 예조현상으로 보이게 한 관심의 기반이 중요하다. 백제 멸망기는 불안 상황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예조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예조담으로 유행했다고 보이는데,⁴⁾ 이들 가운데 여성-구체적으로 궁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정한 수에 달하고 있음은 이들 존재가 당시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1)에서 여우떼의 궁중 침입은 특정 시기 궁녀들의 발호를 비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흰여우가 상좌평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궁녀 가운데 특히 세력 있는 왕비나 후궁이 있어 당시 임금 다음의 권좌인 좌평의 지위까지 지배하는 등 정치적 천단이 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2)는 태자궁 궁녀들의 생활이 문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궁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이런 점으로 하여 더욱 악화되어

4) 이와 관련한 글로 줄고 「의자왕 말기 망국예조기사류의 예조담적 성격 일고」, 『구비문학연구』 12(2001, 6)가 있다.

나갔으리라 짐작된다. 나아가 (3)은 이처럼 당시에 비대해진 궁녀의 존재와 지나친 정치적 행위를 암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이 오래지 않아 몰락하고 말 것임을 예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

결과적으로, 의자왕 말기는 왕비와 후궁 및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인척집단으로 이루어진 여성들의 존재가 특별히 커짐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고, 이들이 '궁녀'로 집약되어 그 비행과 폐해가 과대 해석된 모습으로 후대까지 전승되어온 유력한 동기의 하나였다고 이해된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게 될 궁녀들의 유락행위로 인한 그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보태져 백제말기 궁녀들에 대한 인상이 향락 음일의 나쁜 모습으로 증폭되어 전래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된다.

2) 왕과 궁녀들의 과도한 유락행위

백제 궁녀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것처럼 이해되고, 그녀들의 당시 행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된 배경에는 궁녀를 매개로 한 백제왕실의 유희활동이 잦았던 데에 큰 이유가 있다고 이해된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우선 《삼국사기》의 의자왕조 기록부터 주목할 수 있다.

15년 봄 2월 태자궁을 수리하여 극도로 사치하게 하고 망해정을 대궐의 남쪽에 세웠다.
16년 봄 3월 왕이 궁녀와 더불어 황음탐락하며 술 마시기를 그칠 줄 모르므로……

이 무렵에 이러한 왕실의 유희와 사치 분위기가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음이나(15년), 임금의 유희행위가 주목되어 기록되고 있음(16년)은 이것이

5) '거녀서(巨女屍)담'이라고 해야 될 위 이야기는 거녀의 죽음에 초점이 두어진 흉조사실로 기록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라 문효왕조에 약간 다른 연대(667년)와 내용(키 73척, 발 6척, 음부 3척)으로 기록되고 있어 주목되는 데, 조수학은 이를 길조로 해석하고자 했다(조수학, 「'문효왕 범민'조의 巨屍兆 연구」,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101쪽). 같은 이야기가 신라쪽에 수용되고 전승되면서 더욱 과장화된 결과라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길조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경우 모두 흉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당시 왕실의 분위기와 생활관행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좋을 듯하다. 당시의 이러한 역사배경과 왕궁의 분위기를 연결지어 이해하면 위와 같은 행태는 궁녀들을 중심으로 한 왕궁의 향락적 풍조의 상승 및 승전에 뒤따른 자신감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⁶⁾ 위에서도 본 것처럼, 이 무렵은 왕비의 역할이 높아간 기간이자 왕족 세력이 급속히 부상하고 정치적 실권을 지닌 좌평직이 친왕 세력 중심으로 채워져 나가던 때였다.⁷⁾ 그런가 하면 15년 8월은 의자왕이 고구려·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30여성을 빼앗는 큰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위 16년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대전승에 따른 승리감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궁녀의 수가 늘어난 것과 함께 임금의 유희취미의 확대현상이 합치됨으로써 결국 오락을 위한 누정은 늘어나고 이곳에서의 궁녀와 왕실의 유희활동은 점점 그 횟수가 많아졌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간접증거는 오랜 역사서보다도 후대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1) 남북으로 십리에 뵈치도록 樓觀을 높이 지었네.
삼천명의 궁녀가 수없이 많고……(민제인:1493~1563, 백마강부)
- (2) 옛날에는 樓臺가 중첩으로 많았고
삼천의 궁녀들은 치성하고 화려함을 오로지했네. (이사명:1647~1689, 산유화가음)

훨씬 후대의 한시에 나타난 기록이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상상적 추정이라

- 6) 박상란은 『의자왕 전승의 역사적 맥락』이란 논문에서 뛰어난 자질의 소유자였던 의자왕이 위 16년조의 ‘황음탐락’이 원인이 되어 폐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음을 주목, 이것을 사서 기록자의 의자왕에 대한 폄하적 역사관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보고, 그러한 역사 이해 관점은 후대에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고자 했다(『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11., 239~285 참조). 그러나 이는 의자왕과 백제사의 관계를 너무 좁은 구도로 파악한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이를 전적으로 부정적 사관이 반영된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여겨진다. 논리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논자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문제의 균형있는 이해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 7) 박민경, 「무왕 의자왕대 정국운영의 연구」, 『한국고대사 연구』 20 (2000. 12), 587쪽 참조.

기보다 구전에 바탕을 둔 옛날 상황의 재구성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오늘날에 비하여 그 무렵까지만 해도 이들 사실에 대한 구체성이 좀더 자세히 구전되어 왔던 데에서 이러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은 누대가 많다는 뜻과 함께 그 범위가 넓다는 뜻도 된다고 본다. 남북으로 뻗었다고 했으니 사비강의 남북 연변 곳곳에 정자가 세워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2)를 볼 때 강변만이 아닌 여러 곳에까지도 정자가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누정을 많이 지었다는 기록은 곧 앞에서 살펴보았던 백제왕실의 여유와 거기에 바탕을 두고 향락분위기가 높아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실 중심의 누정이었을 것이니 왕족과 귀족들의 유흥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이곳에서의 유흥에는 궁녀들의 참여가 자주 뒤따르곤 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의 궁녀를 동반한 임금과 그 측근들의 유흥은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일탈행위로 쉽게 비쳐졌을 것이며, 특히 궁녀의 역할이 과대해지고 정치적 파행이 노출되는 시점에서의 임금의 누정휴식이나 유흥은 곧 폐정행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컸다고 짐작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진전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시대에, 그리고 후대에 이르면서 나쁜 인상이 증폭되어온 이러한 금강변 일대의 누정과 그로 인한 임금의 유흥활동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부여읍 일대 뿐만이 아니라 부여에서 강을 따라 논산 부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산재한 임금의 유흥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 두 지점 사이에 위치한 관련 유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왕포(고란사 아래)→망해정(부여읍 동남리 화지산)→대왕포(부여읍 왕포리 강변)→낙화암(부여읍 열창리 읍매)→희녀대(부여읍 부여면 현북리)→궁골(논산시 석성면 우곡리)→황화산(논산시 등화동)⁸⁾

8) 이 외에 불암·강경산·화암·삼송정·칠산 등으로 이어지는 강경 일대의 여러 곳들이 후대 선비들의 유람지로 주목되었던 사실을 유의할 때 이들 지점들도 백제 당시 유람지의 영역 속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구전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고관사 아래 대왕포는 이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임금의 특별한 유흥행위로 하여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망해정은 앞에서 인용했듯 의자왕 15년에 정자를 세웠다는 곳이다.⁹⁾ 한편, 첫번째와 같은 이름이 있는 왕포리의 대왕포는 역시 그 위치상의 중요성과 함께, 앞의 경우와 같이 왕의 유흥행위와 관련하여 똑같은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비슷한 행위가 이곳에서도 있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동일한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염창리 낙화암은 부소산 낙화암과 똑같은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¹¹⁾ 바위절벽이 있어 경관이 좋은 곳이고 주위에 정자가 있었다는 구전도 전해온다. 그리고 회녀대(戲女臺)는 역시 강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는 집터로서 임금이 궁녀를 희롱하고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는 실제로는 임금의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휘어대(揮御臺)의 와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혹 이것이 ‘회녀대’ 또는 ‘회어대(戲御臺)’¹²⁾로 와전된 데에는 그 곳에서 임금의 유흥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행사 뒤에는 의례 유흥행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것과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별도의 낙화암전설이 있음을 연결지어 이해할 때 이곳에서도 궁녀가 있었고 그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¹³⁾ 다음, ‘궁골’은 궁녀가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과 함께 임금의 낚시터였다는 자연증거가 남아 있는 곳이다.¹⁴⁾ 위치상 강 옆의 좋은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

-
- 9) 이 산의 이름이 꽃가지산(花枝山)인 점은 ‘매늘이’와의 관련성 면에서도 주목된다.
- 10) 『대동지지』에 백제 무왕이 놀던 곳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 11) 이 부근 마을 어른들은 거의 이렇게들 믿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이곳에서 만난 성창궁(현북리 2구·남·67)씨나 김옥순(염창리 읍배·여·70)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바위 주위에는 속칭 약대추나무가 밀생하고 있는데 궁녀들이 대추를 먹고 씨를 뱉은 결과라는 구전도 함께 전해진다.
- 12) 충청남도·충남대학교박물관 편, 『문화유적분포지도』(1998)에는 戲御臺로 소개되어 있다. 이는 임금을 즐겁게 하는 곳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회녀대’와 견준다면 이것이 좀더 사실에 가까운 이름이 될 것 같다.
- 13) 그리고 이것이 또다른 낙화암전설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된다. 이는 뒤에 더 논의하기로 한다.
- 14) 2001. 5월 이후 필자는 여러번 우곤리 서당골을 방문했다. 전영대(남·77)와 여러 주민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거듭 들었고 현지도 자세히 답사했으며, 임금의 낚시터였다는 바위에 임금과 관련이 있는 글자가 새겨진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이나 집터에서 발견되는 증거물로 보아 관련 구전담은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이 역시 임금의 유락에 적합한 장소의 하나로, 그에 따른 궁녀의 존재가 중요했거나 유다른 점이 있었던 데에서 지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된다. 끝으로 황화산에도 임금[의자왕]이 놀았다는 구전담이 전해지고 있다.¹⁵⁾ 인접한 어상산(御上山)에도 같은 같은 전설이 전승되고 있어 주목되는데,¹⁶⁾ 이를 고려하면 분명 이 지역 일대는 임금의 행차가 자주 있었고 그에 따라 유흥행위도 한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는 이곳 일대가 임금의 휴식이나 유흥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점의 좀더 진전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이들 지점들이 부여와 논산 사이에 있고, 사비강변의 경관 좋은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부여와 논산이 지니는 인문지리적 특성에다 두 곳을 잇는 금강의 자연지리적 성격이 합치된 결과임을 말해준다. 논산의 황화산은 부여가 西城임에 비하여 '東城'으로 비정되는 곳이다.¹⁷⁾ 혹은 고구려에서의 삼궁의 존재를 고려할 때 백제의 경우도 삼궁이 있었을 것임을 가정한다면, 위 서궁·동궁에다 삼례 비류사지와 왕궁지를 더하여 이곳은 두번째 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¹⁸⁾ 부여 북쪽의 왕진리에서 생산된 기와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논산 황화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나, 궁성이나 사원에서만 쓰이던 연화문 와당이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있음¹⁹⁾은 이곳의 경영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왕은 이곳을 자주 다녀갔을 것이며 부여와는 달리 離宮의 성격을 띠는 이곳은 휴식과 안정을 얻자는 것이 주된 방문 목적이었을 것이다. 임금이 낮에는 황화산성에서 놀고 밤에는 사비성 강에서 놀았다는 구전이 있음이나,²⁰⁾ 이 부

15)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이 나타나며 지금까지 구전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16) 『여지도서』 은진현 참조.

17) 홍계선, 「논산 황화산성고」, 『고문화』 23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1983. 12), 49~51쪽 참조.

18) 위와 같음.

19) 앞 주, 43~45쪽 참조.

20) 위 산 밑 마을에 사는 이내인(李來仁·남·78)씨로부터 들은 말이다(2001. 7. 19).

근 일대에 왕이 놀았다는 유래담을 지닌 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²¹⁾은 바로 이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 부여 궁성과 이곳 사이의 임금의 행차는 육로 못지 않게 수로가 중요 시되고 또한 실제로 빈번하게 이용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두 지점 사이가 멀지 않은 데에다 경치마저 수려하여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임금의 수로 행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치가 좋은 곳곳에 쉬는 곳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자도 짓고, 행차를 맞이하고 수발하는 궁녀들도 미리 배치하거나 거주하게 하는가 하면, 그녀들에 의한 가무유희도 배풀어졌을 것이다. 사비궁과 궁녀의 존재가 떨 수 없는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요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²²⁾ 나아가, 이들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던 궁녀들의 존재와 그녀들을 매개로 빚어지는 궁실의 주연은 백성들이 볼 때는 ‘수많은 궁녀가 때없이 놀기만 한 것’으로 비쳐졌을 법도 하다. 특히 전쟁의 패배를 거치면서 그러한 인상은 점점 더욱 과장되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낙화암전설에서 궁녀의 존재가 과장되게 표현된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사실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낙화암 전설과 관련하여 백제사에 대한 부정적 역사인식의 주된 요인을 살핀 데 이어, 전설 형성의 직접적인 소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녀들이 벼랑에 몸을 던졌다는 것의 사실성과 그 정도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일이다. 물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혔듯, 당시 궁녀의 존재가 사비강 줄기 이곳 저곳의 요충에 배치되어 있었듯이 궁녀들이 강물에 뛰어든 것도 꼭 한 곳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회녀대[회어대]에서 가까운 읍배에도 ‘낙화암’이라 불리는 높은 바위벼랑

21) 위 황화산과 의자왕전설은 『동국여지승람』에 보인다. 그리고 채운면 화산리 꽃미에도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이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에는 위 두 곳 외에 채운면 야화리 들꽃미와 용화리 용꽃미에도 같은 전설이 더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22) 민제인(閔齊仁, 1493~1549)의 ‘백마강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음은 이러한 추론의 가능성을 더욱 굳게 뒷받침해주는 예로 들 수 있다: “군왕이 出遊하면 꽃들이 웃음으로 다투어 맞이했고 / 烟浦에 籠舟를 띄우고 柳汀에 鸞旗를 드날렸다.” 이 시에서 배를 타고 이곳 저곳 경치좋은 곳을 다니며 미녀(공궁녀)들과 함께 유희를 즐겼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있어 여기에도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은 이에 대한 예가 된다. 갑작스런 적군의 내습에 직면하여 혼비백산한 궁녀들은 혹은 산 속으로 도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²³⁾, 잠힌 사람도 있고, 적과 맞서다가 죽은 사람이나 자결한 사람도 있었다면, 부근의 바위 절벽으로 올라가 장렬히 강물에 몸을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읍배의 바위벼랑이나 부소산의 낙화암 벼랑 바위가 바로 이러한 현장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후대에 낙화암전설이 이곳에까지 정착된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요컨대 백제말기 왕실 몇 왕족과 관련된 궁녀의 존재가 사실보다 크게 부각되어 낙화암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데에는 일정한 사실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멀게는 왕비를 중심으로 한 궁녀집단의 존재와 그녀들의 비대해진 정치력이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커진 것과 부여와 논산의 지리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사비강 주변에서의 궁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역사배경 면에서는 부소산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투신사실이 뒤에 동일한 낙화암전설을 흡인하여 전승케 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혹은 遠因과 近因으로서 위 전설의 형성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비상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들 요인은 지속적으로 전설적 추동력으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3. 전설 성립의 초기 모습

위와 같은 역사배경 위에서 위 전설이 성립되었다면 이 전설의 초기모습은 어땠을까? 이 초기 양상과 후기의 단계는 달랐을 것인데, 이 초기 단계부터 주목해 보기로 한다.

위 이야기의 전설화의 첫 단계는 '의미 있는 사실로서 확인'하려는 관심을 보여주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망한 뒤에 '멸망의 현상과 이유'들

23) 용정려 독제가 청마산성 북쪽 골짜기를 색시골이라고 부르는데 백제말기 궁녀(색시)들이 몰려와 숨은 곳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색시골 아래쪽에 사는 최영희(여·65, 2001. 5. 21)어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널리 세인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때 극적으로 전개된 당시 역사의 현장과 관련된 사실들이 주된 이야기 거리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비성 주변의 사물이나 자연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욱 중심 되는 재제가 되었을 것이며, 이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좀더 의미 깊은 사실들로서 관심을 많이 끈 것들이 곧 위 이야기를 포함하여 옛바위·자운대·조룡대·천정대 등 사비성과 그 주변의 몇몇 자연물 이야기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역사상황의 심각성과 관련 전승물의 독자성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낙화암 이야기가 이러한 관심을 더욱 높이 끌었을 것임은 자연스런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이들 이야기가 관심 있게 이야기되면서 관련된 자연물에 '이름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이름의 부여는 말에 의한 역사사실의 확인을 눈에 의한 확인으로 보완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야기를 붙들어두고 역사의 사실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야기의 내용과 증거물의 밀접성이 높을수록 증거물의 이름은 더욱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게 되고 그에 의한 사실 강조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궁녀가 떨어진 바위와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기에 이런 면에서 좋은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녀가 떨어진 바위에 대한 이름이 부여된 시기가 어느 때부터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략 사비성 일대의 여러 전설들이 역사적 사실성을 강하게 유지해나간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성의 강한 견인력으로 하여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사실성을 확인하려는 쪽에 치우쳐 자유로운 상상적 표현을 억누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단계의 위 전설은 백제가 멸망한 뒤 오래지 않아 단조로운 이야기로 성립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승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위 전설의 전승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다.

《백제고기(百濟古記)》에서 말하기를「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 강물에 닿았는데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의자왕과 여러 후궁들이 함께 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알고 서로 "차라리 자살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끌고 이 곳에 와서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래서 속간에서 타사암(墮死巖)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속설의 잘못이다. 단지 궁인만 떨어져 죽었다.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돌아갔다는 것은 당사에 기록되어 있다(《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

이것이 본디 백제의 '고기'에 적힌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시기상으로 보아 대략 통일신라가 충분히 안정을 이룬 뒤로 보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위 이야기는 당시 구전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중시해야 할 점은 이처럼 시기상으로 볼 때 이는 위 전설의 초기 단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위에서 말했듯 위 이야기의 내용은 백제사의 마지막 책임자를 상황의 중심에 내세워 역사를 인식하려는 시각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점을 자세히 보기로 하자. 우선 전설증거물의 이름이 '타사암'으로 나와 있다. 사실의 객관성에 충실한 기록일 뿐 과장화가 없다. 있었던 사실을 사실로서 기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면 임금과 후궁이 동등한 비중으로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고 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성에 충실하고자 한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실성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후대에 오면 일반적으로 '궁녀'로 표현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후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의 사실성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곳 바위 벼랑에서 몸을 던진 궁녀들은 다수의 궁녀일반이었다기보다 제한된 일부 후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두번째로는 관념적인 사실성, 즉 사실성(寫實性)을 지향한 표현도 있다. 후대의 표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임금'이 바위에서 떨어진 인물로 포함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이처럼 실제 사실과는 다른 요소를 사실처럼 말하고 있음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유로운 표현적인 사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위 전설은 실제의 사실성과 관념적인 사실성을 함께 보여주며, 이는 일면 모순 같지만 바로 위 전설의 초기단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무렵은 역사사실과 전설표현의 시간과 전송이 오래고 두텁지 못한 때이다. 따라서 실제사실의 영향력이 강하게 지배하는 일면 그러한 사실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인식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불가사의

한 사건에 대하여 우연으로 판명된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합리적 해석을 추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합리성과도 같다. 여기에는 아직 사실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관조하고 감상하는 여유가 개입되지 않으며, 구전적 관습성도 쌓이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타사암 이야기가 임금을 주인공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나 임금과 함께 극단적 방법으로 죽음을 결행하는 동반자를 '후궁'으로 한정하여 설정하는 것은 논리상 자연스런 상상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주체를 두 가지로 다 갖춰 표현하는 것은 사실성의 훼손이 아니라 미흡한 요소의 보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의 출현이 이야기로서의 사실 지향적 인식과 표현의 욕구가 그만큼 강하게 지속되던 시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중심인물을 과대 해석하는, '역사의식의 과잉현상'인 것이다.²⁴⁾ 이는 사실의 직접 반영이 아니며 전설의 구전역사에서 볼 때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관념적 사실성의 반영 결과라는 점에서 이 전설의 구전역사에서 지나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것은 일정한 허구성을 띠되 사실적 역사전설이자 소박한 지명전설로서, 위 전설의 전체 전승과정 위에서 시대적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위 전설의 《백제고기》 기록과 일연의 시각이 차이를 보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수준에서의 전승은 이미 고려시대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위 전설의 전승은 대략 고려시대 이전까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 글에 대한 토론문에서 주영하는 궁녀와 임금이 쌍으로 조합을 이룬 표현이 지나는 당시대의 역사의식을 증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2001. 11. 30. 부여 청소년 수련원 강당) 필자는 그에 대해 역사의 특정인을 중심에 둔 '역사의식의 과잉'이란 말로 대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비컨대 주어진 사건의 진상을 추정함에 있어 정황이 주는 개연성이 너무 강렬하여 진상을 밝히기도 전에 정황에 의한 개연성만으로 사건의 진상을 단정하고 믿으려 하는 것과 같다.

4. 타사암에서 '낙화암'으로의 전환과 그 배경

이렇게 전설로 성립을 본 위 이야기는 시대가 진전되면서 변화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었다. 첫째로 이야기의 주인공 면에서는 '임금'이 점차 배제되고 궁녀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어지는 쪽으로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두번째로 표현면에서는 멋스런 표현의 지향과 더불어 다른 일면 과장 표현의 지향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첫번째 측면은 실제사실 지향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번째는 그와 반대로 이야기의 허구성 지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후시대로 오면서 의자왕이 궁녀들과 함께 투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터인데, 위 전설은 이 대목을 역사사실에 충실한 방향에서 표현 내용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대의 유사한 경우를 다른 예화를 통해 볼 수 있음은 이러한 현상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준다.²⁵⁾ 그런가 하면, '三千'궁녀라는 표현은 또 그것대로 한껏 과장되게 실현되었다. 객관적 사실성의 추구와 허구적 과장성의 추구라는 일면 모순된 현상을 함께 보여준 것이 위 전설의 고려 이후의 변화과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설의 전승과 변이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음미할 수 있다. 전설은 사실로 의식되는 이야기가 사실담지 않게 초월적으로 표현되는 이야기²⁶⁾이며, 허구성이 강조될 수록 사실성도 더욱 짙게 표방되어 전승되는 양식이다. 그런데 사실성의 추구는 개연성 있는 그럴듯함의 추구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정확한 실제 사실을 지향하는 쪽에서 사실성을 지향하는 것이 전설의 특성이기도 하다. 되도록 실제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면서 경이적 허구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전설의 본질임을 위 예는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위 전설의 허구적 표현의 중요한 하나인 '낙화암'이란 이

25) 고려말 이곡(1298~1351)의 <주행기>라는 기행문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그때에 포위를 당하여 너무 급하게 되자 임금과 신하가 궁녀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궁녀들은 의리로 군사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여 때를 지어 이 바위에 이르러 물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임금과 신하가 궁녀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26) 임재택, 『전설』, 『한국민속학의 이해』(문학아카데미, 1994), 329쪽

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타사암은 지지적인 말임에 비하여 낙화암이란 이름은 비유적 표현어이다. 설명적 단계에서 표현적 단계로 상승을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을 한 단계 진전시킨 이 표현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기록상으로 이것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말 이곡(李穀, 1298~1351)의 글을 통해서가 아닌가 한다. 그의 시의 일부를 보자.

……하루 아침에 금성탕지(金城湯池) 와해(瓦解)되어
 천길 높은 바위 이름 불러 '낙화'로다
 공후의 꽃동산에 농부가 밭갈고
 버려진 비석 곁에 동타가 묻히었네……<부여회고>27)

낙화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내력의 소개가 표현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주행기>에도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다.

……낙화암……조룡대……호안……천정대……이것이 이른바 부여의 네 가지 노래〔四詠〕요 이 지방의 빼어난 경치이어서 호사가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오는 것이다……나 스스로 꽤 호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바야흐로 농사철을 당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을 (배에) 실으니, 손님이 많아 공급하는 것이 거의 백 사람이나 되고……<주행기> 28)

위 글은 고려 말기에 이르러 부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이미 유람자들이 선호하는 방문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낙화암도 그런 장소의 유력한 한 곳으로 이름을 얻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낙화암을 포함한 네 곳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이들 장소가 오래 전부터 관광객들의 깊은 관심거리가 되어왔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는 예로부터 사비강의 자연경관이 주는 매력에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사꾼들에게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흥취 있는 유람을 했던 목은이 그 당시에 느낀 감흥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낙화암이라는 비유어는 이처럼 이곳에 대한 관광객들의 평소 기대감이 더욱 흥취 있게 드러난 결과라 할

27) 『국역동문선』 I, 274쪽. 위 책의 번역을 따랐음. 원문은 다음과 같다 : “一旦金城如解瓦, 千尺翠巖名落花 野人耕種公候園 殘碑側畔埋銅駝”

28) 『국역동문선』 VI, 264~265쪽. 원문은 생략함.

수 있다. 역사유적이자 관광지로서 더욱 널리 알려진 전설의 대상이 사실적 인식보다는 허구적 표현을 자극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낙화암'이라는 이름이 이미 이곳에 앞서 널리 불리고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이 이름이 언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타사암 이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타사암 부근이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유람객들의 탄상이 거듭되어 나가고, 이것이 어느 무렵 식자의 기록으로까지 전환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고정된 이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낙화암'이라는 이 새로운 표현의 기반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일까. 어느 한 시인의 우연한 상상력의 소산일까? 아니면 다른 부여의 어떤 문화·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한 것일까. 이와 관련, 여성이나 기녀의 투신 낙하를 흔히 낙화로 표현한 예가 전부터 있어왔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위의 경우도 이러한 관례적인 비유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상호 관련성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특수 상황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특수상황에서의 영향관계가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여 일대의 산, 혹은 부소산이 지니는 어떤 특징이 위 전설의 이러한 표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점을 주목하여 서로 연결지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 표현이 처음 발단된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해도, 부소산 혹은 그 인근에 일상화된 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했기에 그러한 상상이 쉽게 착상되고 정착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처음 부여 인근에 널리 전승되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산유화가와의 관련성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앞에서 밝혔듯이 사비성 일대는 사비강과 그 주변경관의 수려함에도 논산 지역(혹은 금마 지역까지를 포함하여)과의 특수성으로 하여 궁녀를 중심으로 한 궁중 유희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유희가 행해졌다고 전해지는 장소가 여러 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야산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매놀이(山遊)'로 불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산마다 기화이초를 심어놓고 임금의 이를 완상하며 즐겼다는 말도 함께 전해

지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궁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메놀이’·‘메놀이꽃’이 성립되고 이것에서 한자의 ‘山遊花’가 나왔을 것이며, 이로부터 山有花도 가능했을 것이다.²⁹⁾ 특정지역과 백제임금과의 깊은 관련성,³⁰⁾ 그리고 논산 인근에 메놀이나 산유화를 증명하는 곳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하여 이들 사례는 부여와 금강변 일대까지 널리 행해진 놀이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이들 산에는 의례 꽃도 있었을 것이고 이 꽃은 동시에 ‘궁녀’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의미가 확장되어 널리 쓰였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 지역에서는 산을 대하면서 실제의 꽃을 보는 것과 동시에 궁녀를 연상하는 것이 널리 관습화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산에 대한 꽃 이미지의 일상화된 관행이 부여 일대의 문화적 독자성으로서, 이것이 ‘타사암’을 ‘낙화암’으로 전환케 한 상상의 토대가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세밀히 생각해보면 부여와 사비강 일대의 야산들이 ‘메놀이’와 ‘산유화’의 현지였듯이 부소산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정식으로 기록된 고란사 밑 바위에서 임금이 벌였던 유흥은 ‘메놀이’의 연속이었고, 또한 그때 놀았던 ‘궁녀’들도 ‘산유화’의 연장이었던 셈이다.³¹⁾ 이처럼 산과 꽃의 익숙함은 ‘낙화’라는 이름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낙화암’이란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친숙한 일반명사로 인식하게 해주었으리라 여겨진다. 타사암이 낙화암으로 간단히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이러한 부여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이 배경을 이름으로써 가능했다고 이해된다.

29) 산유화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 관점은 일찍이 이재옥이 제기했었고 박노춘에 의해 다시 언급되었다. 박노춘, 『한국문학잡고』(시인사, 1987), 25쪽 참조.

30) 이들 지점과 바로 이웃해 있는 채운면 우기리도 백제임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큰 우기·가운데 우기·작은 우기가 있는데 분디 큰 임금터·가운데 임금터·작은 임금터가 자연지명이다. 이들 지명은 임금님의 정치적 이념의 실현과 관련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31) 과거 부여를 찾은 유람객들이 낙화암과 산유화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이해하고 이를 시로 읊기도 한 사례가 이런 이해관점이 무리가 아니라는 예가 될 것이다. 하나의 실례로 여기서는 김한록(1722~1798)의 시 <皇蘭寺續山有花歌>를 들기로 한다. 南山有花北山有花 花不言笑奈何 不言尚可故國亡奈何 故國君王遊燕時 乘盞向花問 花何易老 宮中美女多嬌姿 携伴折花矜花顏 色好城闕一朝改 紅粉萬古沈光彩 國滅人亡不復存 年年世世花空在 花空在長相笑 青山綠水西風殘照 (『寒澗集』)

5. '삼천'궁녀로의 과장과 상상의 확장

낙화암이란 표현을 통하여 위 전설은 지시적이고 사실적인 확인 단계를 넘어 문학적 상상의 세계에 더 가까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을 직설법으로 드러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간접화한다는 것은 사물을 대하는 데에 그만큼 여유를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곧 사물과 그것을 대하는 주체 사이의 간격을 주관적 느낌의 표현으로 메울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킨 것이 '삼천'궁녀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위 전설 전승사에 있어 일정한 시기 이후부터 나왔고 이로써 위 전설의 표현세계는 또 다른 단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삼천궁녀란 말은 궁녀의 많음에 대한 최상급 과장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 대한 극한적인 과장표현을 지향하는 것으로써 위 이야기의 전설적 과장은 절정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고려말기까지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조선 초기로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김혼(金訢:1448~?)의 <낙화암> 조위(曹偉:1454~1503)의 <부여회고 차 가정운> 민제인(閔齊仁:1493~1549)등의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³²⁾ 그렇다면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삼천'이란 숫자가 백제사의 실제 사실에 바탕을 둔 표현이 아닐 것임은 누구나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래의 관점처럼 종교나 민속, 혹은 설화적 화소에서 보이는 숫자개념에서 찾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듯도 하다.³³⁾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곧 복합적 영향을 수긍하는 결과로, 분명한 해답을 얻기보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말 위험이 크다고 여겨진다. '삼천'이라는 숫자상의 유사성만을 주목하여 영향관계를 찾으려는 것은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이 너무 많아 객관성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좀더 구

32)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가장 앞선 작품으로 민제의 시가 주목된 바 있다(구중희, 『삼천궁녀제의 민속학적 연구』, 『삼천궁녀제 연구』, 한국사마니즘학회, 2000. 8). 그러나 필자가 본 바로는 이제까지 김혼의 작품이 가장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33) 사단법인전통민속문화보존회에서 낸 『삼천궁녀제 연구』(문덕사, 200. 8)에서 제기된 중요한 과제는 바로 삼천궁녀였고, 위 책에 글을 쓴 조홍윤·이필영·구중희 등의 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는데, 필자는 이러한 밀접성을 갖는 것으로 위 전설의 주제와 비슷한 뜻을 지닌 백낙천(白樂天:772~846)의 시 長恨歌에 보이는 ‘後宮佳麗三千人 三千寵愛在一身’이나 또 다른 시의 ‘三千宮女胭脂面 幾個春來無泪痕’³⁴⁾ 같은 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우선 여기에서 삼천이라는 궁녀의 수는 당 현종때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實數³⁵⁾로서 현종의 음향탐락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수로 인식되어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시에서 ‘궁녀(후궁)삼천인’이란 표현이 전설의 그것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국왕과 궁녀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기본 구도도 시와 설화가 일치되고 있다. 백거이란 작가의 유명도 면에서나, 상호 주제의 유사성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후궁에게 빠져 정사를 그르친 당 현종과 의자왕의 행적이 근사한 점을 착안, 누군가 백낙천의 위 시구를 인용하여 낙화암 고사를 노래함으로써 이것이 어느 사이엔가 인구에 널리 회자되어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조까지의 시에서는 ‘삼천’궁녀란 말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은 대략 조선초에 들어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던 듯하다. 또한 역사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³⁶⁾ 주로 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으로 보아 문학적 과장표현에서 발달되어 시와 구전에 의해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면 그 직전이 비유화의 단계라면 조선조부터는 과장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전단계는 자생적 비유의 단계라면 그 후는 외래적 영향을 받은 비유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전단계에 비하여 전설전승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고 문화교류의 폭이 깊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단계에 비하여 후단계인 조선시대는 역사사실에 대하여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유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공감을 얻게 된 것도 조선 시대에 들어와 의자왕에 대한 비판의식이 좀더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

34) 李岩齡·顧道馨·王恩厚·韓廣澤 외 공저, 『중국궁정예속』(천진인민출판사, 1991), 233쪽에서 재인용.

35) 앞 주, 232쪽 참조.

36)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충청도읍지』·『대동지지』·『여도비지』·『동국여지』 등에서 삼천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필영, 『충남 부여지역의 진혼제』, 『삼천궁녀제 연구』, 2000. 8., 65~66쪽 참조).

가 하면 전승의 오랜 관습성으로 하여 과장화와 회화화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 짙게 띠게 되었다. 이런 결과 전시대에 비하여 이때는 전설 내용의 핵심에 대한 초점화 경향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 표현의 멋을 더 높히 실현하면서 동시에 역사에 대한 좀더 강한 비판의식의 표명을 함께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궁녀'의 존재로 관심이 초점화되고, 이를 중심으로 비판의식을 담은 허구적 표현이 더욱 강조된 것이 이 시기에 보여준 모습이다. 이것이 위 전설의 시대적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화에 의한 허구적 표현의 확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하나는 '낙화'의 현상 자체를 증시하여 그 처절성과 비장성을 한껏 드러내고자 한 것이고, 들은 거기에 그림자처럼 동반되는 당시 역사에 대한 질책성의 비판이다. 아래 예문은 한시이긴 하지만 같은 소재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므로 전설에 대한 예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삼천궁녀들이 모래에 몸을 맡겨
꽃 지고 옥 부서지듯 물 따라 떠내려갔네
“우여 우여 어찌하리!” 향왕이 울었고
옥로(玉奴)가 언제 제나라 임금을 저버렸던고
물결에 던진 비선 아득히 어디맨고
지금토록 구름과 비가 바위가에 머무네
향혼이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여기 와 노니는 사람 길이 눈물 흘리네 ……(김혼: 낙화암)

……삼천궁녀가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흩어지는 놀란 혼 바람 앞의 꽃이구나
충언을 듣지 않아 마침내 후회막급
지금도 궁궐 폐허에 동타가 설위하네……(조위: 부여회고차가정운)

두 시 모두 궁녀의 투신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뒷 시를 보면 궁녀가 물에 떨어지는 모습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환상적으로 묘사해 보이고 있다. 또한 앞 시에서도 그와 같은 표현을 잘 실현하고 있되, 그 행위의 고결한 뜻을 함께 은유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깊고 은은한 여운을 갖게 한다. 둘 모두 낙화의 처참함과 비장성을 간접화함으로써 내면을 파고드는 처절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표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 단계에서 본 '낙화'에 의한 비유 정도를 넘어 상상적 표현을 훨씬 깊은 수준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궁녀로 본 관점이 한층 진전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 시에서 삼천궁녀의 '삼천'은 이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사실성의 핵심요소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시대에 비하여 오히려 역사를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관습화된 비판을 그대로 답습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의아심을 갖게 할 정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전을 통한 전승의식의 시대성을 대하게 된다. 위와 같은 현상은 이 시대 지식인들의 의식이 마비된 결과가 아니라 시대에 따른 그들 나름의 일반화된 역사의식이 작동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백제 최후 역사의 모순상이 전시대에 비하여 좀더 잘 알려진 상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과장화된 역사의 오류가 의식되지 못했다는 것은 위 전설과 관련한 일반화된 전승의식이 지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위 전설과 그 현지가 유람지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대상을 낭만적 감상으로 대하려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높아졌다고 이해된다. 또한 그에 따라 사실에 대한 정확성의 탐구보다는 드러난 한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판단을 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자왕에 대한 비판이 더욱 날카롭게 가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초기에 이르러 '허구적 표현의 멋과 비판의식'을 함께 보여준 것이 위 전설에 대한 관심의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조선조 내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과언이 아니다.

6. 맺음 말

이제까지 낙화암 전설이 형성된 역사배경을 짚어보고 전설의 초기단계부터 후대에 이르면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다. 주요 논점을 요약하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을 확인, 음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백제의 멸망에 따른 궁녀들의 죽음이라는 역사사실이 주변적인 역사사실을 흡수하여 전설로 증폭될 수 있었던 것은 백제말기 궁녀들의 존재가 많아지고 그 역할이 증대된 것과 함께, 이들을 매개로 의자왕을 중심으로 한 궁실의 잦은 주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여에서 논산에 이르는 사비강의 자연적 특성에도 이들 지점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정치적 기능이 합쳐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위 전설의 처음 단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무렵은 위 역사사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전설 전승층의 주관적인 역사인식이 강하게 개입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가 안정을 이룬 이후에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 《백제고기》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위 문면은 바로 이러한 위 전설의 초기 단계 모습을 보여준다.

낙화암이란 명칭은 그 뒤에 나온 주관화된 표현이다. 이 새로운 낱말은 막연히 벼랑에 떨어진 궁녀를 비유한 일반적인 비유어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 부여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적 기반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곧 부여 일대의 ‘매놀이’에 뿌리를 둔 여인과 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유표현의 다음 단계는 ‘삼천궁녀’로, 이는 종전의 다양한 추측과는 달리 만당시인 백거이의 시구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백거이의 시가 널리 읽히기 시작한 이후 ‘궁녀’가 갖는 역사상의 기능과 시 소재로서의 유사성으로 하여 쉽게 차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살핀 결과는 역사전설이 전승되는 양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바가 있다. 역사전설은 역사사실에 대한 판단과 표현이다. 사실에는 핵심사실도 있고 주변사실도 있다. 핵심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의 원인·과정·결과를 이루는 것이 주변사실이며 전승자의 의식이나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전승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역사전설이다. 핵심사실에 대한 전설표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사실과 대상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표현의 자율성 쪽으로 나아가며, 이로써 자유로운 전설적 표현이 실현된다. 위 전설에 대한

이제까지의 고찰은 대략 위와 같은 전설전승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해주며, 역사사실의 전설화에 따른 이러한 결과를 확인케 한다는 점에 위 전설의 이해에서 얻는 또다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위 전설의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위 전설은 전설로서 형성을 본 이래 전설증거물이 분명한 점, 그리고 증거물과 그 주변이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왔다는 등의 이유로 하여 전설 전승력이 넓게 확산되고 강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백제의 불명예스런 패망이 원죄로 작용하여 역사의 주된 책임자가 부정평가되고 궁녀들은 긍정평가되는 쪽에서 표현이 이루어지고 감상·음미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조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편리해진 교통사정에 힘입어 수많은 유람객들이 이곳을 더욱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창작 문학³⁷⁾과 음악³⁸⁾, 혹은 방송매체에 의하여 위 전설도 종전에 비하여 훨씬 유효적이고 대량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의자왕은 황음탐락했고, 궁녀는 충성의 일념으로 애처롭게 죽어갔으며, 이로 인해 백제사는 한없는 비감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음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전설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에 비례하여 그것의 부정적 인상도 더욱 넓게 확산된 것이 20세기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일변도의 전설에 대한 역사인식은 7~80년대를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3천궁녀의 '3천'이 지나친 과장이므로 잘못이라는 자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부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호심의 고취와 맞물려 있어 지역사회인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무의식적으로 답습하여 부르던 '3천'이란 숫자가 삭제되어 유적 안내문에 반영되는 등, 소극적이거나

37) 앞에 든 박상란의 논문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로 함세덕의 희곡 <낙화담>(1940년)과 김동인의 소설 <백마강>(1941~1942)이 소개되고 있다. 육당과 가람의 부여 기행문도 같은 예로 추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물론 예들이 어러울 정도로 수많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다.

38) 이에 대하여 구중화는 해방전후에 나온 대중가요 <꿈꾸는 백마강>·<백마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마 이런 자각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실현된 백제사 이해의 축적과 그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는 시대의 진전에 따른 위 전설의 변화된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위 전설의 전승사에서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다른면으로 궁녀의 존재를 지나치게 긍정평가 하려는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만 한다. 최근에 백화정 아래에 세운 낙화암 안내 표석의 내용을 보자.

백제의 사직이 무너지던 날 백제의 여인들이 적군에게 잡혀 처욕스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충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백마강에 몸을 던졌던 곳으로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다.

훗날 그 모습을 꽃이 날리는 것에 비유하여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마강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절벽 색깔이 붉은데 당시 백제 여인들이 흘린 피로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온다.³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종전의 궁녀가 백제의 여인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삼천궁녀'의 과장성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궁녀라는 말을 싫어하여 그것을 아예 백제 여인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역사의식의 부정적인 부분은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살려 충과 열을 주장하고 이를 애국심의 승화로까지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일 것이다. 위 전설이 오늘날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낙화암 전설의 전승사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제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위 전설의 전승사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궁녀를 삼천궁녀로 표현한 것도 과장이었지만 '백제의 여인'으로 바꾼 것도 또 하나의 과장이다. 전자는 구전력을 얻은 자연스런 과장일 수 있었지만 후자는 현재로서 인위적인 과장에 머물고 있다. 전설에서 다수 구중(口衆)의 공감을 얻은

39) 가로 1미터 높이 1.5미터 가량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백화정 아래에 세웠다. 세운 연도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략 5년전 안팎일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요소나 표현은 문학적 과장이 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 인위적 과장은 단순한 왜곡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인위적인 전환과 과장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앞으로 위 전설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있는 항목의 하나로 주목될 수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구중희, 『삼천궁녀제의 민속학적 연구』, 『삼천궁녀제 연구』, 한국사마니즘학회, 2000. 8
- 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 김한록, 『寒澗集』, 단기 4324년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동문선』
- , 『국역동국여지승람』
- 박노춘, 『한국문학잡고』, 시인사, 1987
- 박민경, 『무왕·의자왕대 정국운영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2000. 12
- 박상관, 『의자왕 전승의 역사적 맥락』,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11
- 유원재,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 李岩齡 외 공저, 『중국궁정예속』, 천진인민출판사, 1991
- 일연, 『삼국유사』
- 임재해, 『전설』,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 조수학, 『문호왕 범민'조의 巨屍兆 연구』,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 충청남도·충남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충남편, 1974
- 홍계선, 『논산황화산성고』, 『고문화』 2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3
- 황인덕, 『의자왕 말기 망국예조 기사류의 예조담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12, 2001. 6

<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uyeo Nakwhaam legend

Hwang, In-douk

Nakwhaam's stor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regional legends. Its value is highly estimated in the respect that it is deeply related to the history of Baekje. It is true that most Koreans know this legend well, however there are few who are aware of the process of its origin and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is matter from a historical viewpoint.

The name, Nakwhaam, was given in a later generation. At first it was named Tasaam(墜死巖) which means the rock where King Uija(義慈) plunged to his death with his court ladies. After Baekje perished, people started to call this rock Nakwhaam. According to *Samgukyusa*, *Baekjegogi* (百濟古記) says that this rock was known as Tasaam. Later the name was changed again to Nakwhaam. We can confirm this fact from the travelogue written by Lee Gok(李穀:1298~1351) who was a scholar in the late gorea. In his writing, he said that Nakwhaam(落花巖), Joryongdae(釣龍臺), Hoam(虎巖), and Cheonjeongdae(天政臺) were the famous sightseeing places in Buyeo. Therefore we can infer the name Nakwhaam was started to be used before Lee Gok.

During Joseon, Samcheon - Gungnyeo (three-thousand court ladies) was the common name. We can confirm this by Kim Heun's (金訥:1448~?) poetry. The word, Samcheon (three thousand) originated from Baek Nakcheon's(白樂天:772~846) poetry in Tang(唐). King Hyeonjong had lived with 3000 court ladies. There is similarity between King Uija and

King Hyeonjong who corrupted the politics enraptured by his court ladies. Therefore descendants criticized him with the motif concerning three-thousand court ladies. It usually made people think that King Uija had 3000 court ladies. As Buyeo has known as a famous sightseeing site, this hyperbolic expression has been used more.

Today educated people know that King Uija had nothing to do with 3000 court ladies. But the content of legend continues until now.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the great influence that an orally transmitted narrative can have.